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44 호 현대불교
2021년 6월 16일(음 5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려라

한마음, 주인공과 불성의 의미

질문 큰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지요.

답변 '한마음!' 한다면…, 이게 말을 하자면 길지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악업이나 선업이나 업식이 뭉쳐서, 사람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태어나기만 하면 '고(苦)'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다 업식이 돼서 몸 안에 전부 부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이 많은 업식의 문제들을 어떡하면 한데 합쳐서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업식이라는 거나, 마음이라는 자체, 의식이라는 자체가 체가 없는 것입니다. 체가 없죠? 체가 없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한다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건 평등(平等), 평등성을 말하죠.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건 자연적이죠, 아프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냈을 때는 바로 불성으로 돌아가죠, 불성으로. 그 마음을 한데 합친, 그러니까 불기둥이라고 해도 되죠.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불(佛)이니까요. 마음들이 한데 모아지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념은 조금조금씩 달라도 한 얼굴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다 한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끄달리지 마시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즉 고정됨이 없이 나로부터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변함없이, 나 자체 불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돌아가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있죠. 그거를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게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론으로 헤아리기 이전에,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지 따로 있습니까?' 하고선 그렇게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전체 포괄적인 뜻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부처가 아니라, 이 무생실참의 도리, 이걸로써 자기가 자기를 자극하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오직….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하하…. 자기가 불러 놓고 자기가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는데,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릇 닦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참의 도리를 아마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아, 바로 나는 지금 유생(有生)이 아니라 무생(無生)이다. 무생이 있음으로써 유생이 있는 거지, 유생이 있어 가지고 무생이 있는 게 아니다. 무생은 바로 귀신 방귀씨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하하하…. 씨는 없으면서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있으면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봉으로 탁 꽂아서 움쩍 안 하면서도, 조금도 어김없이 돌아가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참 묘한 도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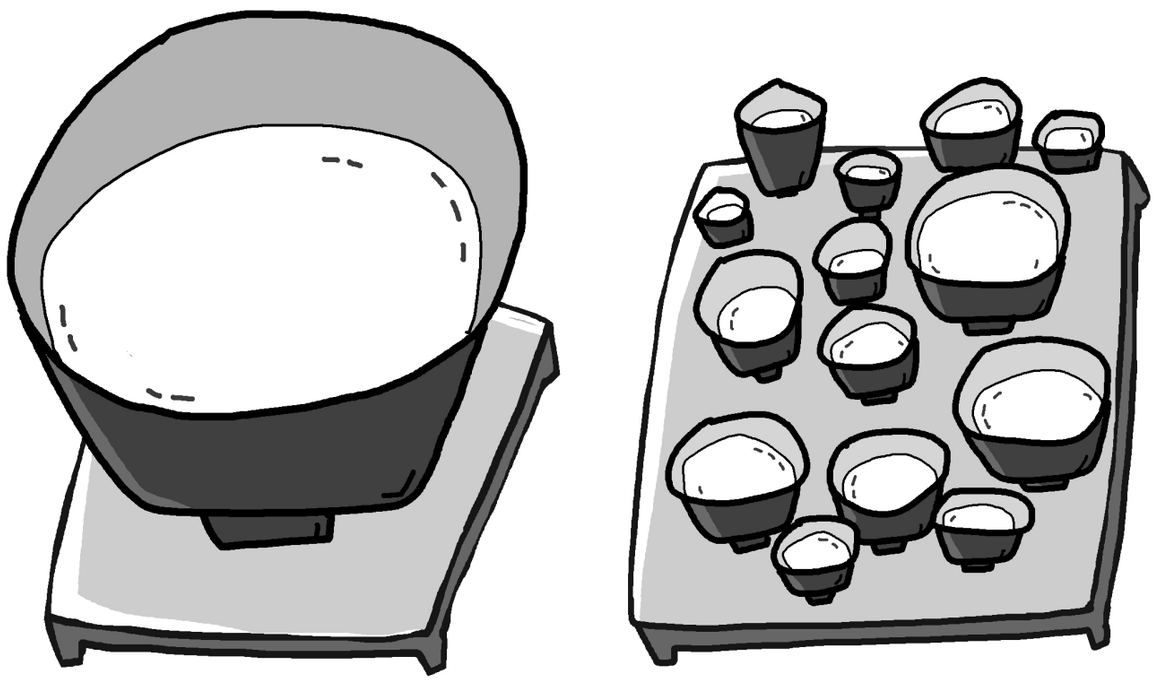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산속의 절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질문 큰스님께서는 생활 속의 참선을 가르쳐 주셨지만 생활에 찌들리며 살다 보면 가끔은 산속의 조용한 절에 가서 참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의 참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사람들이 참선을 한다 하면 그저 몸을 조아리고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을 수행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수행시키는 공부를 합니다. 딴 데서 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어느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스님네들이 좌선, 참선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좌선을, 앉아서 하는 걸 가르치고 가는 것만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선(禪)은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이란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앉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마조(馬祖)가 앉아 있으니까 회양(懷讓)은 기왓장을 갈았다 하지 않습니까? "넌 뭐를 하려고 그렇게 앉았느냐?" 하고 묻자 부처를 이루려고 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누지도 말아야지 선이 끊어지지 않지, 그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거기에서 그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앉았다 하면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게 목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 보시고 '아,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수행이로구나.' 해서 그 후로는 마음의 수행을 중시하셨고 힌두교도에게 수행하는 방법도 일러 주셨죠. 우리가 지금 망상이 일어난다 이러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망상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게 안 난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그러니 부처 가운데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둘이라고 봅니까?

그런 반면에 참선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첫째,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다. 둘째, 증명을 해 줌으로써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이고 내는 그 능한 도리를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것을 아는 까닭에, 세 번째는 바로, 둘이 아니게 이 모든 일체 생명과 더불어 같이 나툰다고 하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 놓으라 하는 겁니다. "선으로 돌아간다면 악이 붙고, 악으로 돌아간다면 선이 붙으니 어찌 벗어날 길을 찾으랴. 악도 놓고 선도 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자체에서 그대로 묘하게, 인간을 첨단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용솟음치고 나옵니다. 그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묘합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의 보배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슬픔도 미움도, 또 선의적인 마음도 악한 마음도 듣고 보는 대로 생기니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것을 망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하, 이런 것이 전부 죽 솥에서 끓는 죽 방울 나오듯이 그 많은 생명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거기 말리랴.' 라고 해야죠. 죽 방울이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나와도, '네가 했으니까 네가 모든 것을 그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면 '야, 내가 네 속을 썩이려고 그냥 막 이랬는데 너는 유유하게 말이야, 내가 그러는지 벌써 알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터지던 것도 그만 가라앉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 눈물만이, 아무 상관 없이 눈물만 흐르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이지 앞으로 머지않아서 정말 우죽 쏟아지듯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칡뿌리라면 하여튼 굵고 깊이 박혔어야 그 가지마다 굵게 뻗어 나가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 되나 사철 그 칡꽃은 어김없이 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 22면으로 계속

